

## 제2차 아시아 태평양 역학회 및 한일역학회에 다녀와서



가톨릭의대 산업의학과  
이 강 숙

제 2 차 아시아 태평양 역학회와 한일 역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동경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올랐다. 한일역학회의 좌장을 맡으신 이원철 선생님과 일본의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주요역할을 하고 있는 동경의 산업의사 모임에 참가하고자 구정완, 임현우 선생님과 함께 출발하였다. 나라의 경제위기에 무슨 외유나지만 학회등록비와 호텔비가 몇 개월전에 지불되었고, 학회에서 포스터를 발표해야 했기 때문에 어려운 결정을 하였다.

일본에는 5년전 3개월 반정도 머물렀던 적이 있어, 마치 어릴적 살던 집을 지나 칠때처럼 어렴풋한 그리움과 향수로 가슴이 설레었다. 나리타에 내려 동경역으로 가는 기차를 통해서 내다 보이는 교외의 작은 2층집들, 몇일만에 햇볕이 낫는지 집집마다 이불이 널려있어 재미있다. 그들의 집구조가 다다미라 항상 습하여 부지런한 주부는 항상 이불을 뽀송뽀송하게 말려야한다고 한다.

분명히 학회 안내서에 동경역에서 쾌속을 타지 말라는 문구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작은역에는 서지 않는 그 기차를 타고 말아 종점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불상사를 맞고 말았다. 짐을 풀고 잠깐 시내를 돌아보았다. 찰스 램의 주옥과 같

은 수필에서 나오는 '여행의 맛' 처럼 아무도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낯선 거리를 활보하며 느끼는 그 자유로움... 동경의 밤거리는 휘황찬란하여 그들의 경제적 부가 부럽기도 하고, 배울점이 많다고 생각하여 친일파로 오해받기도 하였다.

학회 첫날은 8시부터 시작되어, 부지런히 포스터를 챙겨 학회장으로 나왔다. 길을 물으면, 일본인 특유의 친절성으로 많은 말을 하며 거의 그곳까지 데려다 주었다. 오랜만에 써보는 일본어는 재미있었다. 학회에는 아시아 지역의 경제 문제로 얼굴이 약간 검은 남쪽 사람들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오전에 부산대 김돈균 교수님의 한국의 산업보전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이번 포스터 세션은 대여섯 개의 비슷한 연구끼리 묶어 좌장을 정하여 간략하게 발표를 시키고 질문을 받는 형식으로 정말 자기가 관심있는 사람들만이 모여 있어 참으로 흥미로웠다. 나의 대학원생 조교가 포스터를 재미있게 만들어 주어 눈길을 끌었으며, 좌장은 해외 저널에서 몇번 본 쓰꾸바 대학의 Dr. Iso로써 반가웠다. 오늘은 순환기질환의 날이라 고혈압관리에 있어서 유전적 민감성 연구를 비롯하여 비만, 당뇨 등 고지혈증의 복합적인 측면 등 많은 연제들이 발표되었다.



↑ 학회장에서의 필자

작년에 우리 대학원과 산업의학회에서 일본의 사업장 건강증진 프로그램에 관하여 특강을 했던 노동성의 Dr. Fukui가 교토로 가는 일정에 잠깐 시간을 내어 커다란 일본 술 4병을 힘들게 들고 와 반갑게 만났다. 내 포스터를 보고는 작년에 예방의학회 기념행사로 교실 포스터 소개에서 우리대학이 1등한 것을 생각하며 웃었다. 올 4월에 교토 공장보건회로 돌아간다고 그곳은 자기 고향이라 보여 줄 것이 많다고 놀러오라고 한다. 좋은 친구이다.

다음날은 일본 보건관리자들의 1주동안의 교육과정으로 사업장 운동지도 전문연수과정을 돌아보았다. 마침 키타큐슈 산업의과대학의 장선생님이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기획과 운영에 대하여 강의가 있어 만났으며, 오후에는 일본의 석유회사 예소의 산업의(産業醫)인 Dr. Mori와

기업에서의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요구도 및 수행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이들의 모임인 산업의 지원시스템(OPSS)의 활동 상황을 보았다.

학회의 마지막날은 아시아 지역에서 점점 증가하고 있어 국민건강에 위협을 주는 순환기질환 예방에 관한 심포지움이 있었으며 오후에는 한일역학회로 그들이 자기나라 전국지도를 펴 놓고, 자랑스럽게 잘 관리되고 있는 코호트들을 발표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강화 코호트 및 서울 코호트 등이 소개되었다. 한편 큐슈대학의 교수가 일본에 사는 한국인의 질병에 대하여 일본사람들이 조사해 놓은 것을 발표하여 기분이 좀 언짢았다. 왜냐하면 미국의 일본인에 대하여는 일본 학자들에 의하여 수많은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었기 때문이다. 한일교류를 위한 저녁 만찬은 그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았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나서, 가장 젊고 미국에서 학위를 마치고 막 돌아온 Dr. Sobue가 서울의 찬가를 받음도 좋게 멋들어지게 불러대었다. 그들이 한국 노래를 좋아하는 것이 이해가 안간다. 그외에도 요시무라 선생님의 춤과 노래는 상상을 넘어서 웃겼다. 짧은 기간의 모든 일정이 끝났다는 데 대하여 싸구려 선물집에서 일본에서 가장 맛있다는 생맥주 한잔으로 피로를 풀었다.

한국에 돌아오자 산업의대의 요시무라 선생님, 자치의대의 야나가와 선생님에게 감사의 편지를 오랫동안 일본어로 써서, 나의 영어 논문과 함께 보냈다. 좋은 만남이었다.